

#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직업교육 성공모델 ‘우뚝’

‘빛고을 직업교육’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실무 인재 육성  
피텍사업과 시너지…구성원 각종 표창·RISE 재능기부도

동강대학교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가  
지·산·학이 연계된 실무 중심 직업교육  
을 활발히 펼치며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6일 동강대에 따르면 글로벌외식조  
리제빵과는 지난 2022년부터 광주시교  
육청이 추진하는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  
지구 상호학점 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  
업계와 학생들이 교교 시절 원하는 분야

의 전문성을 키우고 미리 대학 학점을 취  
득할 수 있다.

이 학과는 이태리·일본요리 실습 등  
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연속 산업  
체 연계 성과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  
하는 실무형 인재를 꾸준히 육성해 오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고용노동  
부 일·학습병행제(P-Tech) 사업에 선  
정된 동강대는 P-Tech 과정을 자체 개  
발·운영하고 직무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

하는 등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 지구 사  
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RISE 사업단과 다채로운 재  
능기부 활동으로 ‘광주 문화예술·관광  
도시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지역 기반  
직업교육 모델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학과 구성원들의 수상  
결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오명진 학과장이 미래지향적 직  
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광주시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학생들은 국내외 요리경연대회에서 우  
수한 수상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제9회 제  
주향토음식품평회 및 세계조리사연맹

(WACS)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는 금·  
은·동메달을 비롯해 상을 훔쳤었다.

출전 학생들은 지역 식재료와 세계 조  
리 트렌드를 접목한 창의적 메뉴 개발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역 기반 글로벌  
세계조리’로서 자질을 인정받았다.

오명진 교수는 “지·산·학이 연계된  
현장 맞춤형 실무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에 적극 반영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  
는 핵심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  
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학생들의 안정  
적인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광주·전남권  
조리 교육 선도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제9회 제주향토음식품평회 및 세계조리사연맹(WACS)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훔쳤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정홍윤 보성 벌교여자고등학교장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현혈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 정홍윤 벌교여고 교장, 현혈홍보위원 위촉

정홍윤 보성 벌교여자고등학교장이 대  
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위촉됐다.

26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과거 전남 혁신학교 컨설팅단, 보  
성혁신교육지구 위원 등 활성하게 활동해  
온 정 교장은 현재 대한사립학교장회 부  
회장으로서 전남지역 사립학교장을 대  
표하고 있다.

저서로는 ‘원창역, 여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화포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 등

2권의 에세이가 있다.

정 교장은 현혈홍보위원으로서 내년 말  
까지 광주·전남 지역 현혈자 예우 증진과  
현혈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정 교장은 “코로나19 이후 현혈 등 우  
리 사회 전면에 걸쳐 예전 상대로 회복되  
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현혈, 나눔, 인  
성교육 등의 소중한 가치가 다음 세대에  
게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승태영 기자 st1235@gwangnam.co.kr

## 동아병원,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수여

동아병원은 최근 병동 간호사 A씨가  
입원 환자 보호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회진 중 환자 보호자의 불  
안한 행동과 계속되는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 즉  
시 경찰에 신고해 보호자의 소중한 재산  
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남부경찰서는 의료 현장에서의 세  
심한 관심이 범죄 예방으로 이어진 지역  
사회와의 모범적인 귀감으로 평가. 감사장  
을 전달하게 됐다.

우성환 동아병원 대표원장은 “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 안전까지  
지켜낸 직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  
로도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안심하고 치  
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환  
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사학연금, 저소득 학생 지원 ‘나눔기금’ 3000만원 전달

### 소아암 환자·자립 준비 학생 치료비·학업비 등 사용 예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6일 사랑  
의열매회관에서 사학연금 송하중 이사장  
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연금나눔기금’ 전달  
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은 저소득 학생 지원을 위해  
나눔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나눔기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소아암 환아 3명의 치료비와 자립 준  
비 학생 5명의 학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나눔기금은 교육비, 의료비, 자립 지원  
등 저소득 학생 지원을 위한 사학연금 가  
입자 참여의 기부체널로, 모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2023년도부터 사랑의열매와  
함께하고 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선생님들



26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사학연금나눔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입·통원 치료 중  
인 어려운 학생들의 의료비와 자립을 준  
비하는 학생들의 학업비를 지원할 수 있

게 됐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해 준 사랑의열매에 진  
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나눔기금’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 조선대병원, 고난도 단일공 척추 수술 선도

### 1cm 내외 절개…신경 감압·디스크 제거 등 시행

조선대학교병원이 고도의 숙련도가 필  
요한 ‘전내시경적(단방향·Uniportal) 요  
추 유합술’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며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26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내시경적  
요추 유합술은 1cm 내외의 단일 절개를  
통해 신경 감압, 디스크 제거 및 케이지  
삽입 등 유합의 핵심 과정을 시행하며, 이  
후 최소 절개를 통한 후방 고정술을 병행  
하는 고난도 척추수술 수술법이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척추 수술의 흐름이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정상 조직 손상  
을 줄이는 최소 침습 수술로 빠르게 전환  
되고 있어 해당 시술을 선도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특히 이 수술법은 피부 절개와 근육 손  
상을 극소화할 수 있어 수술 후 통증이 적  
고 회복이 빠르며, 턱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적 만족도 또한 높은 것이 장점이다.  
전신 절임을 동반한 환자나 수술 후 뻐른  
일상 복귀가 필요한 고령 환자에게도 폭  
넓게 적용 가능해 수술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만, 좁은 단일 통로를 통해 모든 수술  
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집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고도의 숲기 숙련도가 반드시  
시 요구되는 대표적인 고난도 수술로 꼽  
힌다.

서종훈 조선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는



조선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서종훈 교수가 단방향 요추 유합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전내시경적 요추 유합술은 최소 침습 수  
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충분한 신경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료와 연  
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제시판

일정 △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미약류 오  
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미약류제조운동본부 광  
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  
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  
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  
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  
득층, 장애인(3급 이상) 등 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  
문의 062-369-4009.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

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  
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  
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부모 △장국태(향년 85세)씨 별세. 이정순씨  
남편상, 장윤호·장애란·장지영(광남일보  
편집국 편집부장)·장현진·장현주씨 부친상. 김광영·조용  
창·이기상·권의경씨 장인상 = 26일 오전 7시4분. 광주 그  
린장례문화원 VIP실. 발인 28일 오전 9시. 장지 광주 영락  
공원. 062-250-4455

## 운세 (음력 12월 9일)

48년생 현재 모습이 가장 나쁘거나 바꾸지 말라  
60년생 일과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72년생 회복이 빠르며, 턱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적 만족도 또한 높은 것이 장점이다.  
96년생 고생 끝에 나이가 날

소 51년생 맞지 않은 이와 함께 하니 부담스럽다  
63년생 주변사람에게 키운슬링하지 말라  
75년생 사고우려가 있으니 먼 출장을 삼가라  
87년생 배우자 이외의 남자 주의하라  
99년생 이성 관계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모 54년생 오래 사지 않도록 예의를 지켜라  
66년생 영쳤던 일이 풀려나거나 만사형통  
78년생 준비가 철저하면 걱정 없다  
90년생 막힌 일 해결되는 하루

복 57년생 오랜 장고는 귀하에게 불리하다  
69년생 주민나사정이 좋지 않게 된다  
81년생 시기fulness 알고 나기면 맘들이 없겠다  
93년생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라

49년생 아무 이상 없으니 계획대로 추진하라  
61년생 여행을 떠나거나 배 타는 곳 가지 말라  
73년생 자존심 버리고 시댁과 손잡고 전진  
85년생 비교하면 늦어지니 서둘러 선택하라  
97년생 잘 살리다면 많은 결실이 따른다

옹 52년생 부동산 먼 인물 보고 추진하라  
64년생 돈소문 믿지 말고 주관 가지고 나가자  
76년생 정도를 갖는 것이 안전하고 빠르다  
88년생 시댁에서 인정받는다

양 55년생 현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라  
67년생 끈질긴 노력이 상대를 감동시킨다  
79년생 계획 충실히나니 상사에게 칭찬받는다  
91년생 포부를 크게 가져야 큰 것 이룬다

개 58년생 문서를 주고받을 좋은 운세

50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62년생 일도 보고 봄도 떠나 집안 단속하라  
74년생 의견을 주변사람에게 강요는 금물  
86년생 자신으로 세상에 효과를 얻는다  
98년생 미움 비우고 집에서 하루 지내는 날

뱀 53년생 만전을 기한 후에 일하는 것이 낫겠다  
65년생 아랫사람 도움으로 소원을 이룰 것  
77년생 부부 갈등 우려 있으니 양보가 화목  
89년생 미진한 화를 보충하는 기쁨이 있는 날

원숭이 56년생 유혹이나 어려운 일에 놓이게 된다  
68년생 민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날  
80년생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저장 없다  
92년생 무조건 둘이오는 대로 잡아 둬라

돼지 59년생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다  
71년생 혼자 하는 편이 훨씬 편할 것  
83년생 친구들의 도움으로 낭패를 면한다  
95년생 마음이 다급해질수록 자중하라